

광주비엔날레 ‘한 달 앞으로’ …작품 설치 본격화

전시공간 조성 공사 막바지

오늘 신세계백화점에 홍보관

사전예매 시 최대 40% 할인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오는 13일부터 작품 설치 작업을 본격화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항공과 배로 작품

운송이 시작됐으며 이숙경 예술 감독이 이달 초부터 광주에 상주하면서 설치 작업을 총괄하고 있다.

현재 본전시가 열리는 전시관 조성공사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며 작품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작가들의 방문이 이어진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해 국립광주박물관, 무각사, 예술공간 집, 호랑가시나무 아트 폴리곤으로 각 전시관 특성에 맞춰 소주제별로 전시 공간으로 채운다.

‘은은한 광륜 (Luminous Halo)’은 광주의 정신을 영감의 원천이자 저항과 연대의 모델로 삼는다. ‘조상의 목소리 (Ancestral Voices)’는 전통을 재해석해 근대성에 도전하는 예술적 실천을 탈 국가적으로 조명한다. ‘일시적 주권 (Transient Sovereignty)’은 후기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 미술 사상이 이주, 디아스포라 같은 주제와 관련해 전개된 방식에 주목한다. ‘행성의 시간들 (Planetary Times)’은 생태와 환경 정의에 대한 ‘행성적 비전’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본다.

재단 측은 이달 말 손님 맛을 채비를 완료하고 4월 6일 개막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 등과 연계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도 추진한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최근 광주디자인진흥원과 협력해 ‘비엔날레 도시’ 광주를 위한 패키지 입장권을 개발했다. 또 광주비엔날레 지역 호텔 숙박객에게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KTX 및 SRT 승차권과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패키지도 판매하고 있다.

(재)광주비엔날레는 8일 제14회 광주비엔날레 홍보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1층 컬처 스퀘어에 마련된 홍보관은 8일부터 4월 6일까지 한 달간 운영된다.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는 “광주의 다채로운 장소에서 펼쳐지는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문화예술의 도시 광주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했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 (Soft and Weak Like Water)를 주제로 오는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94일간 열린다.

한편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예매 입장권은 개막 전인 4월 6일까지 재단 홈페이지 티켓정보 페이지와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네이버 예매 등에서 현장 판매 입장권보다 최대 40%가량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다.

/이나라 기자



전남도 산불 비상대책 보고회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7일 오전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비상대책 상황보고회’를 주재하고 산불 예방대책 추진 현황 보고 청취 및 대응 방안을 토의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유명무실 위원회 폐지·통합 ‘속도’

운영실적 저조 등 55곳

올 상반기 목표 본격 정비

광주시가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와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닭은팔 위원회’를 속속 폐지 또는 통합하고 나섰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40여 위원회 가운데 법령상 강행 설치해야 할 위원회를 제외하고 유사·중복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55곳을 불필요한 위원회로 판단, 이르면 올 상반기 안으로 폐지·통합·비상설화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원가분석자문위원회 등 6곳은 폐지,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등

15곳은 통합, 국어진흥위원회 등 27곳은 비상설화 대상으로 분류됐고, 협의체 전환과 존속기한 설정도 한 곳씩 포함됐다.

이 가운데 24곳은 정비가 완료됐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등 12곳은 통합이나 비상설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 진행 중에 있다.

정비대상 위원회는 당초 50곳이었으나 실·국별 면밀한 검토 끝에 5곳이 추가됐다. 실제 청년일자리위원회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당초 정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부서 검토 과정에서 통합 대상으로 분류돼 현재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시는 행정안전부 인력관리 방향에 맞춰 운영실적이 극히 부진한 ‘식물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통합하거나 비상설화하고, 4년 존속기한이 지난 위원회는 관련 조례 일몰 규정에 따라 자동폐지해 위원회 남발과 영구존속을 차단기로 했다.

또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기존에 설치된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통·폐합하도록 해 총량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원석 시 정책기획관은 “비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비 목표 위원회 중 아직 정비되지 않은 위원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조속히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길용현 기자

전남도의회, 오늘부터 9일간 임시회

조례안 등 25건 심사

전남도의회가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369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등을 심사하고 처

리할 계획이다.

8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고 김미경 의원과 김호진 의원, 박현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김정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침수방지사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정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 박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제369회 임시회는 오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최종 심의·결하고 폐회한다. /정근산 기자

윤영덕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정보 은폐 상황”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대응단 소속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침묵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TF를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올해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계획에 원전 오염수 대응



계획을 담지 않았다”며 “정부 TF 중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계획을 밝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마저도 방사선 모니터링과 수산물 감시를 하겠다는 계획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외교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수준을 알 수 있는 데이터 자료를 일본 정부로부터 전달받았으나 공개하지 않고 정부 내에서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정황을 파악했다”며 “일본에게 당당히 원전 오염수의 안전을 확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오염수 감증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가사노동 사회적 가치 인식 제고해야”

박미정 시의원, 토론회서 강조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가사수당 도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렸다.

광주시의회는 7일 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내 삶이 행복한 광주형 가사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및 시민 사회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광주시의회와 광주여성가족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는 박미정 시의원(사진)이좌장을맡았다.

여성가족재단 김경례 대표이사과 김영신 연구위원은 각각 발제를 맡았고 정찬기 광주광역시 빛고을50+센터장, 구은정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조교수, 장세레나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조선익 전 참여자치21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경례 대표이사는 ‘가사노동의 사

회적·경제적 가치’라는 발제문을 통해 “무상급식, 무상보육, 장애인 돌봄, 요양 관련 제도 등 돌봄의 사회화 정책이 확대되면서 가정에서 수행하던 돌봄노동이 공적 영역으로 이동했지만 여전히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상당하다”며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미정 의원은 “시민의식이 성장하고 사회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전통적인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광주형 가사수당 도입 타당성 및 추진방향 연구가 진행되는 만큼 시대에 알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www.goldclass.co.kr

단, 한채의 집을 짓더라도 내 집 짓는 정성으로
고객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은 명품주거공간으로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 온 기업, 골드클래스
그 기술과 정성으로 고객감동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골드클래스

골드클래스(주) · 골드디움(주) · 골드종합건설(주) · 보광건설(주) · 보광종합건설(주)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1 (화정동) 골드클래스 ■ 문 의 : 062) 233-3999